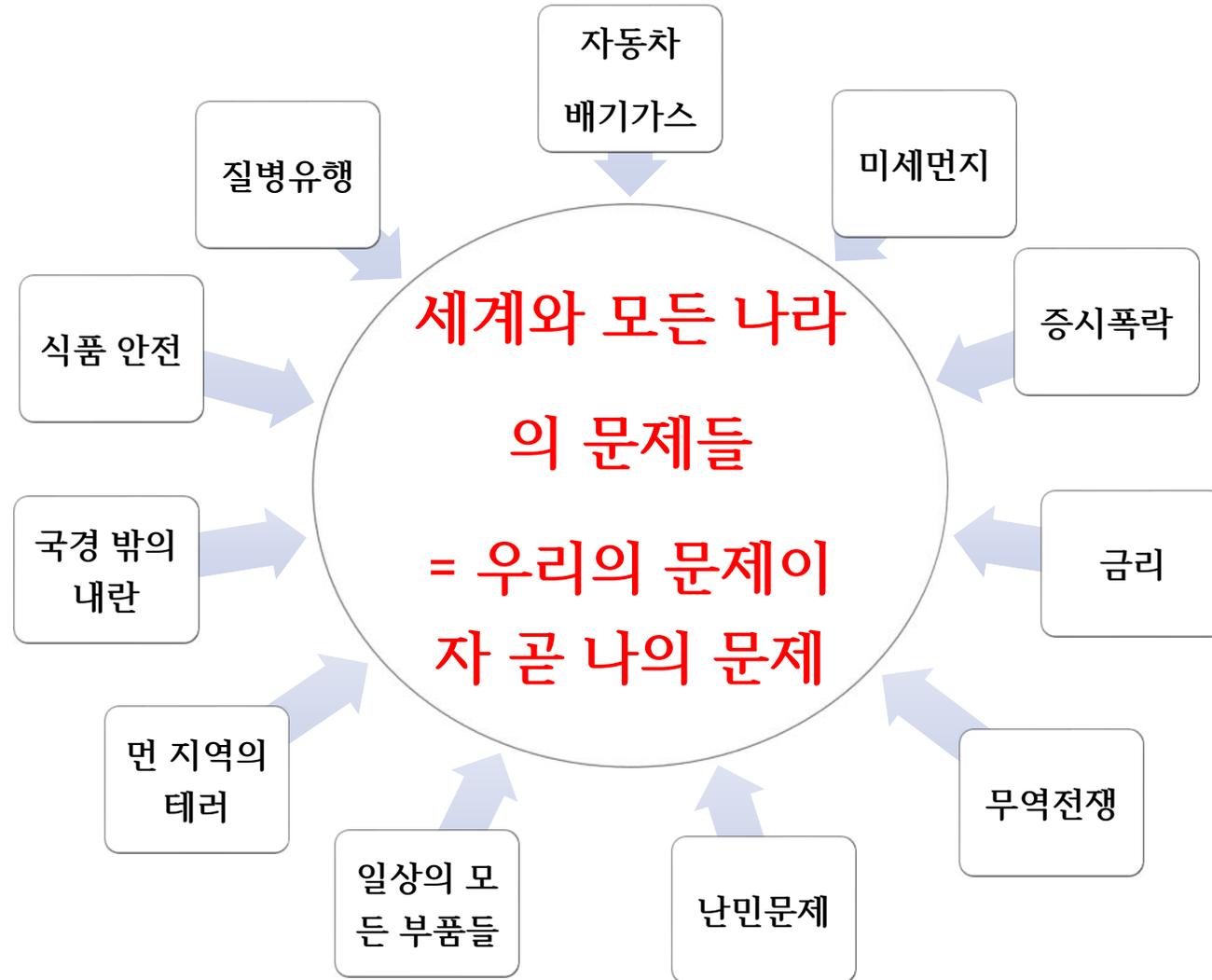


몽양 여운형의 세계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소장)

# 세계와 함께 가는 오늘의 내 삶과 실존



# From Divided World to Walled World

- 세계분단에서 세계장벽으로.
- 초연결(hyper-connected)세계인 동시에 초장벽(hyper-walled)세계
- 이념분단, 진영분단에서
- 인종장벽, 종족장벽
- 종교장벽, 문화장벽
- 철제장벽
- 법률장벽
- 이민장벽, 시멘트장벽으로
- <https://www.theguardian.com/world/ng-interactive/2013/nov/walls#intro>

# 개인과 세계시민, 한반도와 세계시민

- 개인적 삶을 지배하는 세계: 나의 실존이 세계적 차원에서 좌우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
- 세상에 온 이상 **모든 인간은 반드시 세계와 함께 사는 세계시민**
- 특히 한반도: 대륙과 해양, 문명 대 문명, 이념 대 이념, 제국 대 제국의 경계국가 → 장기평화와 세계고난 속에 세계시민의 운명을 타고난 인간공동체. 오늘의 핵문제 역시 세계문제. 세계시민의식 없이 해결 불가능.
- 경계국가 = 양면국가, 전초국가, 가교국가, 연결국가, 교량국가, 융합국가, 혼용국가, 중심국가

# 오늘의 한반도와 세계에 필요한 사상과 인물

-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세계주의자.
- 특히 강점과 분단이라는 예외상황을 항구화 일반화 보편화하려는 완전히 잘못된 오류의 인식과 사관을 극복해야.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항일이나 친일이나? 통일이나 분단이나? 민족이나 반민족이나?
- 이러한 식민사관과 분단사관, 흑백이분법 사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구화 이후의 보편적 세계시민주의나 평화공존, 대감염사태, 행성주의에 대처할 수가 없다.
-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갈등국가의 하나. 대화와 타협, 연립과 연대, 평화와 공존의 노선과 지도자가 가장 절실한 시점.

# 세계시민 의식과 사상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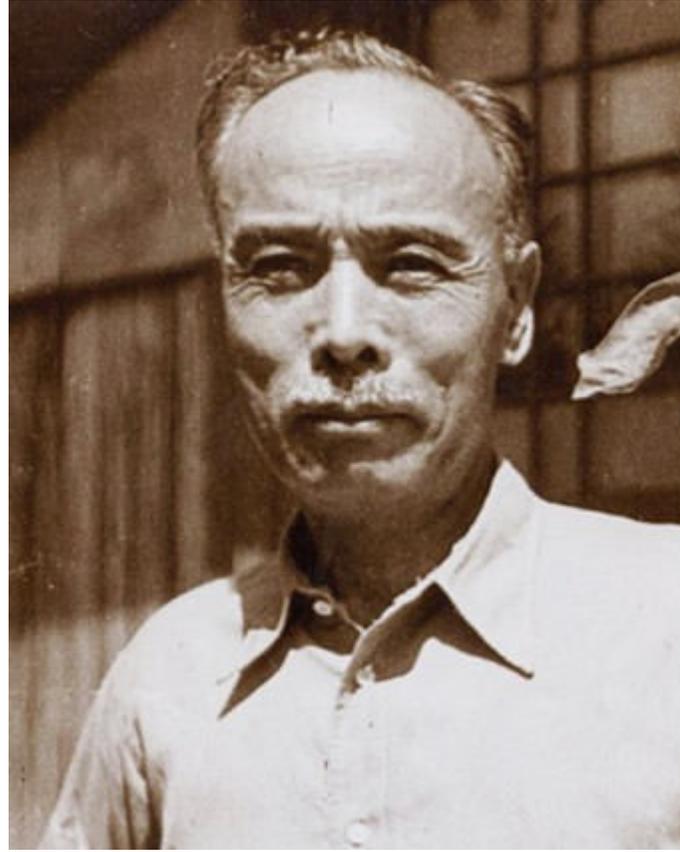
- 소크라테스 이래 Marcus Aurelius, Seneca, Cicero, Dante, Erasmus,
- Francis Bacon, St. Augustine, Comenius,
- Constantin Volney, Anacharsis Cloots, Thomas Jefferson, Jeremy Bentham, Immanuel Kant
- 안중근 여운형 이승만 조소앙 …..
- 세계시민은 국가시민이 될 수 있지만, 국가시민은 꼭 세계시민이 되기는 어렵다. 인류애는 동포애와 함께 가지지만 동포애는 꼭 인류애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의무와 인간의 인류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 현대 한국과 여운형

-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주의, 국제문제로서의 한국문제 인식과 국제-세계주의 노선
- 애국주의(patriotism)와 민족주의(nationalism)의 절묘한 결합. 애국주의 없는 민족주의자들과의 차이.
- 국제조건과 민족현실, 애국주의/민족주의와 국제노선/국제주의의 결합노력
- 계다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독임과 일방이 아닌 대화와 타협, 전쟁이 아닌 평화주의를 열망하고 추구한 인물.

# 3.1운동과 파리평화회의의 김규식 파견

- 일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처.
- 파리평화회의에서의 한국문제 논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모두 정확하게 인지.
- 국제회의에의 한국대표의 파견 주도. 주체성과 세계성의 결합을 항상 추구

## 3.1 운동 직후 도쿄 제국호텔 연설

- 결코 민족자결주의에 도취한 것이 아니다. 세계를 개척하고 개조로 달려나가 평화적 천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선조는 칼과 총으로 서로 죽였으나 이후로 우리는 서로 붙들고 돕지 않으면 안된다.
- 한국이 독립한 후라야 동양이 참으로 단결할 수 있다. 실상은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 이 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요 세계 대세의 요구다. 평화란 것은 형식적 단결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차제 일본이 암만 첩첩이구로 일지친선을 말하지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국독립문제가 해결되면 중국문제도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다.

# 3.1운동 직후 도쿄 제국호텔 연설

- 일찍이 한국독립을 위하여 일청전쟁과 일로전쟁을 한 일본이 그때에 성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을 까먹었으니 이것이 한일 두 민족이 원한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 한국독립은 일본과 분리하는 듯하나 원한을 버리고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 함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합일이요 동양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며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제일의 기초이다.
- 우리는 꼭 전쟁을 하여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싸우지 않고는 인류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못얻을 것인가? 일본인사들은 깊이 생각하라

# 일본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

- 조선의 독립은 단순히 조선인의 독립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 일본, 중국 등의 동양 전체와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화불화(和不和), 쟁부쟁(爭不爭)의 분기점을 이루는 문제이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우리 조선에 대해 일본 문화는 조선에서 이입된 것이다.
- 일본은 청일, 일로 두 전쟁 시기에 있어서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할 것을 세계에 성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곧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말았다. 일본은 조선과 세계에 대해 배신을 하였다. 전세계는 일본의 사기적 소행과 배신을 분격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일본을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자로 낙인 찍고 있다. 일본은 잃었던 신의를 되찾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일본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

- 지금 중국의 배일열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음은 그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근인은 산동문제와 21개조에 있다고 하겠지만 더 큰 원인은 강행된 한일합병에 있는 것이다. 청일전쟁 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는 조선국의 자유독립을 규정하고 있거늘 일본은 그것을 망각하였단 말인가?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한일합병은 동양평화를 파괴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독립은 동양평화의 회복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될 것이다.
- 한국독립의 네 가지 목표 1) 조선의 복리 2) 일본의 신의 3)동양평화 4) 세계평화와 세계문명

# 일본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

- 또 동양의 평화없이 세계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잠자는 중국은 세계열강의 세력 집중처로서 화쟁의 집산지가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불화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화중에서 상멸을 면치 못할 것인데, 이쯤의 내일을 투시못하는 둔뇌배들이 어찌해서 한일합병은 이를 강행할 수가 있었는가? 조선독립은 이같이 연쇄적 세계평화의 열쇠가 될 것이니 현자는 택할 바를 알 것이며, 둔자는 묵과의 우를 범할 것이다.

## 3.1운동 100주년과 세계주의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국제학술 행사 - 이승만, 김구, 여운형, 이회영/이시영, 조소앙, 지청천을 포함한 대표적인 광복운동 가문과 기념단체의 대표들을 모두 초청.
- 놀랍게도 이 부영 선생을 포함하여 모두 초청에 응해주셨다. 자발, 연대, 평화, 세계라는 진정한 3.1 정신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정신으로서의 진보-보수연합, 좌우합작.
- 3.1운동 100주년 당시에 안중근과 여운형의 세계주의 정신을 깊이 떠올렸다.

# 2019 3.1운동 100주년과 여운형 정신: 연대, 평화주의, 세계주의











# 건국과 세계성 및 주체성,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 광복 직후에도 여운형의 사태인식은 근본적으로 국제조건을 고려한 위에서의 민족이익의 추구였다.
- 당시 국제규정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었다. 해방은 2차세계대전의 종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군국주의를 패배시킨 강대국의 발언권이 막강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여운형은 해방 직후의 첫 연설에서부터 현실을 고려한 조건에서 이상을 추구하자고 역설하고있었다.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방종하거나 함부로 날뛰지 말 것도 호소하고있었다.
- 그러나 그는 해방은 결코 주어진 것만은 아니라며 거기에는 우리민족의 치열한 독립투쟁이 깃들어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해방은 왔지만 독립국가건설의 의무와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민족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 건국과 세계성 및 주체성,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 사태를 날카롭게 가르던 탁치문제, 미소공위, 좌우합작에 대한 그의 대비 역시 일방적이고 무모한 근본주의적 폐쇄적 민족주의나 교조적 국제노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적 조건을 예리하게 고려한 위에서 민족적 열망을 추구하는 노선이었다.
- 탁치문제에 대한 여운형의 대응을 보면 그가 신탁통치라는 국제적 결정과 반탁이라는 민중의 민족주의적 감정 및 정서 사이에서 이 둘을 결합하고 통합하고자 얼마나 고뇌하고 노심초사하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 미소공위와 좌우합작에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위에서의 민족주의적 이상의 추구, 발표자는 이것을 현실주의적 민족주의, 이상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면 어떨까 본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비추어 여운형의 노선은 최선이었다고 판단된다.

# 민주주의와 여운형

- 민주주의는 두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하나는 목표로서의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다. 여운형은 이 두 가지 점에서 당시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원칙에 충실하려 노력한 지도자였다. 그의 일관된 민주주의노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구성과 활동이다. 우선 건준의 선언과 강령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일관되고 지속적이다. 원칙적 수준에서 그는 결코 민주주의를 포기하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시점에서 이루어야하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진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 그러한 민주주의의 실현방법으로서, 여운형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당시 건준에는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자에서 민족주의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 독립운동세력이 망라되어있었다. 그는 이들을 함께 결집시켰으며 누구도 조직내의 독점적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도록 노력하였다. 건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당시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가장 폭넓은 구성을 보여, 좌우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소강령적 건국노선이었다. 출발부터 좌우연합으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 민주주의와 여운형

- 좌우공존 뿐만아니라, 그의 활동 중 특이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던 조직 내부의 중지를 모아가는 합의의 과정을 중시한 반면 파벌투쟁이나 헤게모니투쟁에는 관심도 능력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독립운동 시절은 물론 건준을 포함하여 피살될 때까지의 일관된 노선이었다.
- 그 점에서 그는 건국, 민주주의의 실현의 목표도 중시했지만 합의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중시한 지도자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했던 점에서 해방정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 관용과 민주적 절차성을 실천했던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다.
- 1946년 ‘좌우합작 7원칙’의 합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는 박헌영계열의 의견 뿐만 아니라 우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당한 목적의 설정과 추구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미 갈등상태에 있는 세력과 의사의 합의과정이라는 근대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려했었던 건국 초기에 드물게 보는 지도자였다.

# 여운형과 세계성-주체성-민족성-국가성

- 여운형의 이상과 현실, 목표와 노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1946년 그가 미국과 소련 모두로부터 잠정적으로 대안적 지도자로 상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 우선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여운형을 상정하고있었다. 이것은 소련이 미국과의 협의를 고려하여 아직은 김일성, 박헌영과 같은 정통좌파를 지도자로 내세우고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초로 조만식을 내세우려던 구상이 탁치갈등으로 좌절되자 온건좌파이자 최대민족주의자연합을 추구했던 여운형을 대안으로 고려하였던 것이다.
- 실제로 여운형이 추구했던 이 최대민족주의연합은 설사 그가 박헌영 및 공산당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크게 상이한 내용을 담는 것이었다. 즉 여운형은 최소강령적 - 최대민족주의자연합 (minimalist- nationalist coalition)을 추구했다면 박헌영은 최대강령적 - 최대민족주의자연합(maximalist nationalist coalition) 을 추구했다.

# 여운형과 세계성-주체성-민족성-국가성

- 특히 같은 시점 여운형은 미국이 추구한 좌우합작의 가장 중요한 한 쪽 당사자였다. 좌우합작은 미 군정의 정책이었을 뿐만아니라 여운형이 좌우파의 비난과 공격을 무릅쓰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이었다.
- 따라서 그것은 건국 전후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주의인 동시에 민족주의노선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여운형에 대한 미소의 공동대안모색, 그리고 그의 좌우합작 추구 및 북한·김일성과의 빈번한 접촉에 비추어 그의 민족주의/민족통일 노선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대안이었다고 본다.
- 그는 기실 해방정국에서 미소 및 남북을 아울러 대안으로 모색되었던 유일한 지도자였던 것이다.
-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여운형의 삶과 사상, 특히 세계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폭력과 전쟁, 대결을 전제하는 정치를 거부한 가장 앞자리에 서는 지도자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그의 세계, 타협, 대화, 민족., 민주, 진보, 평화의 가치와 노선은 21세기에도 모범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범형을 이룬다.

# 전후 연합점령·분할점령 국가의 민주·화해·통일·평화 경로

## 1. 얄타회담과 포츠담 회담

### Allied Control Commission 점령 대상지역 (주축국 및 가담국- 전범국들)

- ✓ **Romania**: 1944.9.12.(1958). 공산당 단독 독재, 통일, 소련위성 ⇒ 민주화, 평화
- ✓ **Bulgaria**: 1944.10.28. 공산당 단독 독재, 통일, 소련위성 ⇒ 민주화, 평화
- ✓ **Hungary**: 1945.1.20. 미·영·소 연합정권 ⇒ 공산당 단독 독재(유일 사례)  
통일, 소련위성 ⇒ 민주화, 평화
- ✓ **Italy**: 1943.11.10.-1947.9.15.(살레르노의 대전환. 연합정권)통일,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화
- ✓ **Finland**: 1944.9.22.-1947.9.26.(연합정권)통일, 민주주의, 자본주의·복지, 평화, 비동맹·중립
- ✓ **Austria**: 1945.7.4.-1955.5.15.(연합정권)통일, 민주주의, 자본주의·복지, 평화, 중립
- ✓ **Germany**: 1945.6.5.-1951). 1990.9.12.(연합정권) 분단/통일,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화

# 전후 연합점령분할점령 국가의 민주 · 화해 · 통일 □ 평화 경로

## 2. 일반명령 1호 점령대상지역

- ✓ **Japan:** 미군 단독점령. 통일, 평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 ✓ **China**
  - ✓ 만주 - 소련 극동군 사령관, 중국본토·대만 - 장개석
  - ✓ 전쟁 / 분단
  - ✓ 민주주의 / 공산주의, 자본주의/사회주의
  - ✓ 사실상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협력(경제 및 영토-안보 문제)
- ✓ **Vietnam**
  - ✓ 16도선 이북 - 장개석, 16도선 이남 - 미군 동남아 최고사령관
  - ✓ 분단, 전쟁 ⇨ 통일, 사회주의
  - ✓ 일반명령 1호에도 불구하고, 통일 베트남 민주공화국 건국
  - ✓ 그러나 프랑스가 군대파견, 전쟁 발발
- ✓ **Korea:**
  - ✓ 38도선 이북 - 소련군, 38도선 이남 - 미군
  - ✓ 격렬한 내부 분열 ⇨ 분단·전쟁·재분단
  - ✓ 민주주의 / 공산주의, 자본주의 / 사회주의, 북핵 및 유일 군사대치 국가

# 독일연방공화국

	1940	1950	1960		1970
총리	Konrad Adenauer (기민당)		Ludwig Wilhelm Erhard (기민당)	Kurt Kiesinger (기민당)	Willy Brandt (사민당)
임기	1949.9.15. ~ 1963.10.16.		1963.10.17. ~ 1966.11.30.	1966.12.1. ~ 1969.10.21.	1969.10.21. ~ 1974.5.7.
형태	연정 (기사)		연정 (기사)	연정 (사민 대연정)	연정 (자유)
시기	라인강의 기적 (전후 복구 및 경제발전, 안보 강화)			동방정책	
	Erhard 경제부 장관 (1949.9.20.~1963.10.15.)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1957.10.29.~1963.10.15.)			Brandt 외교부 장관 부총리 (1966.12.20.~1969.10.20.)	Genscher 내무부장관 (1969.10.22.~1974.5.16.)

# 독일연방공화국

	1970	1980	1990	2000	2010
총리	Helmut Schmidt (사민당)	Helmut Kohl (기민당)	Gerhard Schröder (사민당)	Angela Merkel (기민당)	
입기	1974.5.7 ~ 1982.10.1.	1982.10.1 ~ 1998.10.27.	1998.10.27. ~ 2005.11.22.	2005.11.22. ~ 현 직	
형태	연정 (자유)	연정 (자유)	연정	연정 (사민 대연정)	
시기	독일통일		Genscher 외교부 장관 부총리 (1974.5.17.~1992.9.17.)		

# 핀란드 공화국

대통령	임기	정당	총리	임기	정당
			Pehr Evind Svinhufvud (페르 에빈드 스빈후부드)	1917.11.27.~1918.5.27.	핀란드인당 (Young Finnish)
			Juho Kusti Paasikivi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	1918.5.27.~1918.11.27.	핀란드인당 (Young Finnish)
Kaarlo Juho Ståhlberg (칼로 유호 스톨베리)	1919.7.25.~1925.3.2.	자유당 (국회선출)	Kyösti Kallio (퀴외스티 칼리오)	1922.11.14.~1924.1.18.	농민당
Lauri Kristian Relander (라우리 크리스티안 렐란드르)	1925.3.2.~1931.3.2.	농민당 (선거인단)	Kyösti Kallio (퀴외스티 칼리오)	1925.12.31.~1926.12.13. 1929.8.16.~1930.7.4	농민당
			Pehr Evind Svinhufvud (페르 에빈드 스빈후부드)	1930.7.4.~1931.2.18.	국민연합당
Pehr Evind Svinhufvud (페르 에빈드 스빈후부드)	1931.3.1.~1937.3.1.	보수당 (선거인단)	Kyösti Kallio (퀴외스티 칼리오)	1936.10.7.~1937.2.17	농민당
Kyösti Kallio (퀴외스티 칼리오)	1937.3.1.~1940.12.19.	농민당 (선거인단)	Risto Ryti (리스트 뤼티)	1939.12.1.~1940.12.19.	국민진보당
Risto Ryti (리스트 뤼티)	1940.12.19.~1944.8.1.	자유당 (선거인단)			

# 핀란드 공화국

대통령	임기	정당	총리	임기	정당
Carl Gustaf Mannerheim (칼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1944.8.4.~1946.3.4.	무소속 (국회선출)	Juho Kusti Paasikivi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	1944.11.17.~1946.3.9 .	국민연합당
Juho Kusti Paasikivi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	1946.3.11.~1956.3.1.	보수당 (국회/선거인단)	Urho Kekkonen (우르흐 케코넨)	1950.3.17.~1953.11.1 7. 1954.10.20.~1956.3.3	농민당
Urho Kekkonen (우르흐 케코넨)	1956.3.1.~1982.1.27.	농민당 (1933-1965) (선거인단)  중도당 (1965-1982)	Mauno Koivisto (마우노 코이비스토)	1968.3.22.~1970.5.14 . 1979.5.26.~1982.1.26	사민당
Mauno Koivisto (마우노 코이비스토)	1982.1.27.~1994.3.1.	사민당 (선거인단)			

# 오스트리아 공화국

	1940	1950	1960	1970	1980	
수 상	카를 레너	레오폴트 휘글	율리우스 라브	알폰스 고르바흐	요제프 클라우스	브루노 크라이스키
임 기	1945.4.29. ~ 1945.12.20.	1945.12.20. ~ 1953.4.2.	1953.4.2. ~ 1961.4.11	1961.4.11. ~ 1964.4.2.	1964.4.2. ~ 1970.4.21.	1970.4.21. ~ 1983.5.24.
정 당	사민당	국민당	국민당	국민당	국민당	사민당
시 기	오스트리아 모델의 형성기 (1945~1986)					
	대연정, 연합국 점령시대		대연정, 라브-차키츠 노선 '작은 기적'		크라이스키 시대	

# 오스트리아 공화국

	1980	1990	2000	2010		
수 상	알프레트 지노바츠	프란츠 브라니츠키	빅토르 클리마	볼프강 쉬셀	알프레트 구젠바우어	베르너 파이만
임 기	1983.5.24. ~ 1986.6.16.	1986.6.16. ~ 1997.1.28.	1997.1.28. ~ 2000.2.4.	2000.2.4. ~ 2007.1.11.	2007.1.11. ~ 2008.12.2.	2008.12.2. ~ 현 직
정 당	사민당	사민당	사민당	국민당	사민당	사민당
시 기	오스트리아 모델의 재편기 (1987~)					
		대연정		중도우파 소연정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여운형을 그리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여운형을 그리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운형을 그리며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운형을 그리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운형을 그리며

